

북한의 식량난과 김일성 생일 행사

김안구 /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4월은 잔인한 날”

올해 북한의 4월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식량 배급이 끊어진 지 오래된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며, 영양 실조로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씩 죽어가는 속에서도 ‘돌아가신 수령님의 생일 행사’ 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주린 배를 움켜지고 우상 행사에 참석하는 북한 주민들의 심정이야 짐작하고 남는다.

‘수령’이 죽은 지도 3년, 웬만하면 그만둘 때도 됐으련만, 북한 당국은 올해도 4월 한 달 ‘수령님 생일 잔치’로 없는 살림을 총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이른바 85회 생일로, ‘0.5주기로 꺾어지는 해’라 더욱 성대하게 치렀다. 이미 지난 2월 수억 달러를 들여 김정일의 55회 생일 잔치를 치룬 데 이어, 또 다시 이처럼 성대한 행사가 벌어져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클 것이다.

사실, 김일성·김정일의 현지 지도 기념비 하나 세울 돈이면 한 마을은 먹여 살릴 수 있

다고 한다. 지난 1995년 10월 완공된 당 창건 기념탑 건설 비용을 주민들의 양식 구입에 사용했다면, 요즈음 거지 동냥하듯 외국에 나가 식량 지원을 애타게 호소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한 북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호사스러운 생일 잔치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 가운데 김일성을 폄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생일 잔치에 드는 비용으로 식량을 사와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오히려 김정일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는 이러한 융통성이 없다. 제 백성이야 굶어 죽든 말든, 김일성 우상화쇼는 열어야 하는 게 북한이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있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不敬罪’라도 저지르는 게 되는 것처럼... 마치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주에게 몸과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면, 전부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온갖 재물을 바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올해 김일성 생일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지난달 22일부터 4월 말까지를 '김일성 생애 따라배우기 위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의 '혁명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해 각종 집회를 비롯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4월 들어 생일 행사는 본격화됐다.

지난 9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개막된 사진전시회에는 김일성의 '혁명 활동'과 '영도 업적'을 찬양하는 115 점의 사진이 걸렸다.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5월 9일까지 한 달간을 기한으로 한 전국소조원 미술전람회가 열리고 있다. 또 김일성 우상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화 상영 旬間'이 평양과 각 도에서 열렸다. 김일성 찬양물을 발행하는 노동당출판사에서 김일성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각 권별로 수록한 「김일성 저작집」 제45권부터 50권까지 총 6 권을 출판했다.

각지의 청년 학생들을 '좋은 일하기 운동'에 내몰아 10문의 '청년전위砲'를 마련해 군 부대에 전달케 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그동안 주요 기념일마다 행해져오던 것이다. '좋은 일하기 운동'이란 북한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파·고철 수집, 토끼 기르기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을 말한다. 배가 고파 학교에도 못 가는 학생들을 이러한 일에 내몰았던 것이다.

또한 각종 우상화물도 잇따라 건립됐다. 지난 9일 평양기관차대에 제막된 김일성의 1945년 11월 현지 지도 표식비와, 같은 날 개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직업 동맹 '영도 업적'을 선전하는 '직업총동맹 혁명사적교양실'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일성 생일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뭉치뭉치 해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다. 지난 1982년부터 연례 행사(1983년은 생략)로 열고 있는 '축전'은 해외 예술단들을 초청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각종 예술 공연을 갖는 행사이다. 해외 예술단의 초청 경비와 방북 체제비는 전액 북한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이 예술 공연이지 아프리카·남미·아시아 친북 국가 가무단의 공연으로, 대부분 예술성에서 수준 미달 작품들이므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7일부터 18일까지 12 일 동안 만수대예술극장, 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을 비롯한 여러 극장들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40 개국에서 60여 개 예술 단체와 3,000여 예술인들이 참가했다. 북한은 이 축전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賞勳까지 새로 제정해 수여했다. 이밖에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와 대규모 집단 체조 등도 열렸다.

북한은 또한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교육 부문 연구토론회를 시작

으로 각급 단체별로 토론회를 열어 소주민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시킬 것을 촉구했다. 3일에는 직맹 부문, 사회과학 부문, 철도·운수 부문에서, 8일에는 농근맹과 당 간부 육성 부문, 9일에는 주체청년운동사상 연구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이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회주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단체별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내 행사들에 그치지 않고 해외 각국에서 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갖가지 행사들을 진행했다.

재일 조총련은 김일성의 85회 생일을 최대 규모, 최상의 수준으로 치르기로 하고 간부들과 계열 동포들을 독려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사설을 통해 전체 조총련 간부들과 동포들에게 "수령님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면서 "85회가 되는 올해 생일 행사를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최상의 수준에서 다채롭게 조직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조총련 각급 기관과 간부들은 한 달 가까이 김일성의 勞作과 회고록 학습, 강연회, 연구토론회 등을 가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 이집트, 스웨덴, 가나,

캄보디아, 짐바브웨, 몽골, 인도 등지에서도 김일성생일기념준비위원회가 결성돼 각종 행사들이 열렸다.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고 유명 무실한 친북 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진행된 해외 생일 행사는 영화감상회, 주체사상연구토론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채택모임 등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과 업적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 행사는 1995년과 1996년의 행사와 달리, 김일성보다는 오히려 김정일에 부계 중심이 실려 있었다. 이는 올해 김정일의 공식 승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행사나 구호 등은 김일성을 회고하며 그의 영생 불멸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마치 이번 생일 행사가 누구의 생일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이다.

일례로, 북한의 신문·방송들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또 한 사람의 장군 김정일 장군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교시하셨다"는 등으로 김일성을 통해 김정일을 부각시켰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작곡, 주민들에게 보급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김정일을 '빨치산의 아들', '행복의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주체혁명 위업의 대를 이은 완성'과 김정일의

‘사상이론’, ‘영도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소개한 중앙방송은 “노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부르기 쉽게 창작된 노래”라면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온 나라가 성벽이 되고 김정일 장군님만을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해방 직후 김일성의 항일 업적 등을 미화하기 위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만들어, 크고 작은 행사 때 부르며 김일성에 대한 충성 배가를 다그쳐왔는데, 이번 ‘김정일 장군의 노래’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지난 9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4주 중앙보고대회였다. 보고회에서 북한군 총참모장 김영춘은 ‘보고’를 통해 “김일성의 85회 생일과 김정일의 55회 생일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치자면 전당·전군·전민이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 철벽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며 전주민에게 방위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춘은 이어 “정치 사상 사업을 더욱 강화해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

탄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한 최고 사령관의 제1군위병, 제1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최고 사령관 동지의 영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최고 사령관계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軍 중시 사상을 밝히시고 인민 군대를 혁명 주체의 핵심 역량, 주체 위업 완성의 주력군의 지위에 올려 놓았으며 인민 군대를 충효 일심의 당원으로,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켰다”고 김정일의 ‘영도력’을 찬양했다.

이와 함께 김영춘은 한반도 정세가 한미 양국의 도발 책동으로 “전쟁 접경에 처했으며 북침 격발기는 지금도 당겨진 상태”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싸운다면 이기고, 이긴다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 기질이다”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노동신문」도 9일자 사설에서 “항일의 7연대처럼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고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統**